

【 해외금융뉴스: 중국 】

핑안보험, 중국 최초로 자동차보험 전화판매 전국망 확보

- 전화판매 자동차보험 시장에서 약 80%의 점유율을 보이며 시장을 선도하고 있는 핑안보험(平安保險)은 올해 안에 중국 최초로 전국적 네트워크를 가진 전화판매 자동차보험 영업활동을 하겠다고 밝혀 업계의 주목을 받고 있음.
 - 글로벌 금융위기의 영향으로 일정규모 이상의 대형 기업들이 비용절감 차원에서 잇따라 보험가입을 유보하거나 해약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 가운데, 확고한 고정 수요층과 차량 증가세가 지속되고 있는 중국의 자동차보험 시장은 다른 보험시장에 비해 경기침체 영향을 상대적으로 덜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이로 인해 본격적으로 개방된 지 1년여 만에 전화판매 자동차보험 시장이 보험시장의 새로운 수익원으로 각광받고 있음.
 - 전화판매 자동차보험 시장을 주도해온 핑안보험은 올해 중국 전역에 전화판매 업무부서(콜센터)를 설립하고 약 500여 명의 전문인력을 투입하여 전국적인 영업망을 구축하겠다는 전략임.
 - 이러한 계획이 실현될 경우, 핑안보험은 중국 최초로 전국망을 갖춘 전화판매 자동차보험 관리 및 서비스 시스템을 구축하는 회사로 기록될 예정임.
- 이번 핑안보험의 전화판매 자동차보험 판매망 구축 계획의 핵심은 중앙관리 체제로 자동차보험을 통합·관리하면서 보험증권 배송이나 보험료 수수, 보상 지급 등 후속 서비스는 지역 특성에 맞는 맞춤형 서비스가 제공되도록 시스템을 갖추겠다는 것임.
 - 지역별로 특화된 자동차보험 관련 후속 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회사와 가입자간 직접접촉이 잦아지면서 지역 밀착형 고객 서비스가 강화되고 이에 따라 소비자 만족도 역시 향상될 것으로 전망됨.
 - 또한 보험가입자의 민원해결과 시장반응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상품개발 아이디어를 얻는 부수적 효과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핑안보험은 기대하고

(성도만보, 2/5)